

의대한경도, 불멸의 70성상

주체과학으로 무강조국건설을 추동하시여

이 땅우에 위대한 역사의 날들이 새겨져고 있다.

어느덧 70년, 자기의 판생을 온 세상에 선로한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승리의 언덕위에 높이 올라섰다.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 통성 빙영할 사회주의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세계적인 기관들과 사업들을 창조하며 혁사의 한복판으로 출기자체 청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들이켜 볼수록 친절한 신실성을 더해 주며 천만의 가슴에 자리잡은 억센 기둥이 있다.

주체과학기술의 위력!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일으키자고 담보하여온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만나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비장히 떠올랐는 오늘을 아이 생각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남들이 수십년동안에 이룩한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앞서 나갈수 있게 하는 주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부강조국건설을 뜻있게 촉동해온 우리의 주체과학기술, 이것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며 세월이 가져준것은 더욱 아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의 성스러운 역사에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역할로 내세우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친절함도 주제로 한 학생들을 위한 탐구의 한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도록 따뜻이 손찰아온 것이다.

과학기술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며 세월이 가져준것은 더욱 아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용정을 끌어올리고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며 세월이 가져준것은 더욱 아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을 모아온 것이다.

